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 운영위원회 개요

일 시	2025. 7. 24. (목) 16:00 ~	기 록 자	양 해 인
장 소	홍성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실		
재 적 위 원	7명 (박종태, 이순실, 홍성청소년성문화센터장, 김지혜, 서상범, 변승기, 최정훈)		
출 석 위 원	5명 (박종태, 이순실, 김지혜, 서상범, 최정훈)		
그 밖의 참석자	(간사) 홍성청소년성문화센터 팀원(양해인) (주무부서 담당자) 충청남도청 청소년정책팀 주무관(김은주)		
회 의 개 요	1. 성원 보고 2.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3. 현안보고 4. 안건심의 5. 기타 안건 6. 폐회		

□ 회의록

(간사)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홍성청소년성문화센터 양해인입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운영위원회로 운영위원 소개 및 위촉장 수여,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안건보고 및 의사일정·토론 순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먼저 성원보고입니다. 총 일곱 분의 위원님 중 다섯 분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홍성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규정 제11조에 의해 재직의원과 반수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합니다. 운영위원 위촉장 전달에 앞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 소개 드리겠습니다. (위원 소개) 다음으로 위촉장 전달이 있겠습니다. (위촉장 전달) 이어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 위원)	서상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간사)	서상범 위원님 후보 등록에 동의하십니까?
(서상범 위원)	네.
(간사)	다른 추천이 없으신 관계로 서상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 바랍니다. 총 4분의 동의로 서상범 위원님 위원장에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부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	김지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간사)	김지혜 위원님 후보 등록에 동의하십니까?
(김지혜 위원)	네.
(간사)	다른 추천이 없으신 관계로 김지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 바랍니다. 총 4분의 동의로 김지혜 위원님 부위원장에 선임되었습니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상범 위원)	성문화센터에 애정을 가진 위원님들과 함께 위원회를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 위원)	성문화센터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함께 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 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현안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현안보고는 '충청남도홍성청소년문화센터 시설 운영 현황', '2025년 충청남도홍성청소년문화센터 상반기 실적'입니다. 먼저 시설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문화센터)	시설 운영 현황 보고, 2025년 상반기 실적 보고
(간 사)	이후 진행은 서상범 위원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서상범 위원)	지금부터 2025년 제1회 충청남도홍성청소년문화센터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홍성청소년문화센터 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홍성청소년문화센터는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문화센터)	제안 설명
(서상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예산(안)이 지금 도청에서도 통과가 됐고 본원 추경에서도 통과가 된거면 운영위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인게 맞나요?
(박종태 위원)	아까 천안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운영위원회를 거치고 도청에 변경 신청을 하는게 절차가 맞는 것 같아요. 운영위원회인데 이미 다 짜여진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건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성문화센터)	말씀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센터가 처음 분리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번 예산(안)은 예기치 않게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서상범 위원)	네. 다음부터는 절차가 운영위를 거친 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예산서 상에는 큰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예산보다 센터 내 공석과 채용에 관한 문제 같아요. 충청남도 서남부 지역을 관할해야 하는 센터에 직원이 한 명이라는 건 말이 안되거든요. 상반기에는 센터장님이 계셨던 걸로 아는데, 정확히 왜 센터장님이 퇴사 처리가 되신거죠?
(이순실 위원)	센터장님이 작년에 입사하면서 위수탁 계약 만료일인 7월 10일까지 임기제 형태로 채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7월 10일자로 퇴사처리가 됐습니다. 저희도 어떻게든 이 계약을 연장시키려고 했는데, 사회서비스원 내에서 불가능하다고 하여 그렇게 처리되었습니다.
(서상범 위원)	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형태어야 하는데 행정처리 때문에 센터 운영이 기형적으로 된다는 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연장이 안 돼서 공석이 4명이나 되면 빨리 채용을 진행을 해야 했던 거 아닌가요?
(이순실 위원)	채용을 바로 진행할 수 있는게 아니고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8월 1일자로 채용이 되는 공고가 이미 나갔었는데, 지원자가 2배수에 달하지 않아 채용을 진행하지 못했어요.
(서상범 위원)	지원자가 없다는 건 결국에 이 자리의 매리트가 없어서 그런거 아니겠어요? 결국 다 이렇게 연결되어서 발생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 남아있는 직원 개인의 부담이 커지는 거거든요.
(이순실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2023년에 기관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예산과 조직체가 통합이 되어서 지금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충청남도의 여성가족청소년정책과와 복지보훈정책과가 나누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인사는 복지보훈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영기획실이 충남사회서비스원이고, 서비스원의 주무부서는 복지보훈정책과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공무직으로 채용을 해왔으니 지금 계약기간이 내년 12월 31일이더라도 공무직으로 가는게 맞지 않냐고. 지금 이 부분의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공무직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중입니다. 다만 이번에 나간 채용까지는 사회서비스원에서도 인사위원회를 거쳐 결정이 된 내용으로 채용이 나가는거라,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성문화센터 팀원들이 공무직으로 복귀되는 것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으로 센터장은 임기제이기 때문에 7월 10일로 임기가 끝나고 다시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2배수가 안되어 채용이 진행되지 않아 2차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8월 1일에 채용이 되어 현재 2명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빠르게 채용이 진행되더라도 한달 정도의 공백기가 더 발생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서상범 위원)	그러니까 지원자가 없이 단독으로 지원했다는거죠?
(이순실 위원)	네. 성문화센터의 센터장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 많습니다. 또 서상범 위원님 말씀처럼 성문화 팀원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처우라던지 여러가지 부분에서 안정적이지 않더라도 의미를 두고 할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자격 요건이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교육을 들어서 지

원이 가능한 게 아니라 성교육 쪽으로 일정 교육을 이수한다던 지의 자격 요건이 있는 부분이 있고, 관련한 경험들이 있어야 한다는 자격 요건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성과 관련된 교육들 다른 것들이 많음에도 그걸 이수했다고 하여 인정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지금까지 옆에서 본 바로 참 성문화는 센터장이나 팀원을 뽑기 쉽지 않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그 분야가 상당히 좁고 경력을 쌓거나 활동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게다가 이 흥성이라는 지역에서 근무할 사람을 뽑다 보니 확률이 점점 더 희소성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성문화센터가 충남도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전국 57개의 센터가 있고 여성가족부 산하로 공통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지금도 운영비를 찾아가는 성교육을 통해 교육비가 발생하면 이 돈을 운영비에 사용한다는 것도 여가부의 지침이거든요. 도에서 변경하는 것도 일부는 변경하지만, 완전히 성문화센터 운영을 자체적으로 변경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서상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안성문화, 흥성성문화에 대해 안타까운 지점은 직원이 채용되면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6개월, 1년이라도 근무를 하고 경험의 기술을 갖고 다른 곳을 찾아가도 되는데, 적응을 잘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업무의 강도도 성교육을 일주일에 한 두 번이 있는 게 아니고 주 업무다 보니까 적응하기 어려운 건지, 여러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상범 위원) 그럼 여가부 지침에 의하면 다른 지역에서 팀원 급을 채용하게 되면 그쪽은 다 공무직인가요?

(성문화센터) 네 다른 지역은 공무직 채용입니다.

(서상범 위원) 그럼 현재 흥성성문화센터는 충남사회서비스원과 합쳐지면서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간제로 채용을 한 거잖아요?

(이순실 위원) 계약 때문이죠.

(성문화센터) 네. 위수탁 계약 때문입니다.

(서상범 위원) 그러니까 위수탁 계약 방식을 따라갔다는 거죠.

(성문화센터) 네 맞습니다.

(서상범 위원) 그때 우리가 이사회에서 아마 논의된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기간제로 다 간다 이렇게 해서 밀어붙인 것 같은데, 그러면 여가부 지침상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도 공무직이 채용을 해오는데 일반적인 거라면 마땅히 적용해야죠. 그런 사실에 대한 것들을 이사회에 논의할 때 그러니까 '이게 여가부 지침이고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를 좀 해줬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의 정보들을 많이 몰라요. (충남사회서비스원)이사회는 이쪽에 특화된 전문가들이 아니고 일반적인 자기 분야의 얘기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 관련된 내용을 이사회 전이라도 그런 것들을 좀 누구를 통해서라도 알려주시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해서 이사님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작업이 별로 안 이루어졌던 걸로 알아요.

(이순실 위원) 그래서 원장님이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지금 판단하고 계세요. 그래서 (충남도청 청소년정책팀) 팀장님 지금 22일에 오셨거든요. 팀장님께서도 복지보훈정책과의 인사 담당하고도 긴밀하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서비스원의 원장님은 이미 이게 원래 공무직이었으면 공무직으로 가야 되는 게 바르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그런 거를 지금 차츰차츰 바꾸려고 하시고 계셔요. 공무직 채용이 맞는 게, 현재는 채용이 되어도 오래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공무직이라는 장점조차 없다면 더 채용이 안될 거고, 채용이 된다 해도 오랫동안 여기서 근무하지 않고 퇴사자가 나올 수 있으므로, 최대한 근무하는 거에 있어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여가부 지침에 따라 준용하는 건 필요합니다.

(서상범 위원) 당연하죠. 여가부 지침이 존재하고 그쪽 소속 시설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거고 표준화돼 있는 건데 그거를 안 따르려고 뭔가 별도로 간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만약 기간제로 했는데 지원율이 높고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몇 번 해봤는데도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존에 일하는 사람들은 계속 업무에 부담이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에요. 기존에 잘했던 사람들도 그러면 회의적인 부분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나마 돌아가던 이 시설마저도 안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저는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도청에서도 좀 더 쟁여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또 원장님도 그런 게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또 센터장님에 대한 계약 조건도 제가 볼 때는 계약이 좀 낮아지게 되는 문제지만 그 이상을 조건으로 걸어가지고 센터장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는 그거는 어떤 지적 사항도 아니거든요. 더 잘했다라고 그거를 더 우수 사례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저는 센터장도 뭔가 계약을 진행을 할 때 계약 끝났으니까 다시 공개 채용해야 된다라고 이런식의 뭔가 지침에 있는 딱딱한 걸로 가지 말고 거기에 좀 계약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된 센터장일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라도 좀 서비스원에서 마련을 해 주면 일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훨씬 낫죠. 진짜 센터장은 어떻게 보면 파리목숨이에요. 저도 느껴봤지만 오히려 센터장은 더 비정규직이거든요. 오히려 직원들은 정규직이고. 그러니까 정규직인 직원이 비정규직인 센터장에 대한 그 명령에 대해서 얼마나 잘 따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건 센터장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한데 벌써부터 신분의 차이가 거기서 또 생겨요. 저도 현장에 있으면서 그 얘기를 많이 했었요. 이런 부분은 운영 법인에서 좀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걸 좀 더 소상하게 잘 알았으니까 저도 이사회 할 때 이런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최정훈 위원)	그렇죠. 행정업무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까 6개월 근무기간을 언급하셨는데, 팀원이 자꾸 바뀐다고 하셨는데 근무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성문화센터)	2024년 5월에 입사하여 8월까지 4개월 근무하신 직원과 2024년 12월에 입사하여 2025년 4월까지 약 4개월 근무하신 직원이 있습니다. 두 직원 모두 계약직으로 채용이 됐었습니다. 다만 두 직원분이 채용된 시기가 성문화센터 위수탁 관련하여 논의가 많을 때였고, 찾아가는 성교육에 대한 직원 개인의 부담감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문화센터는 경력직들, 적어도 교육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경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입사하게 되면 교육에 대한 부담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센터가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에 이러한 부담감을 갖고 이렇게 힘들게 남아야 하나? 라는 회의감이 공통적으로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최정훈 위원)	공무직은 정년까지 유지가 되는데, 계약직 직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아직 하려고 생각을 하겠지요. 왜 이 상황을 유지를 하고 있나요?
(이순실 위원)	청소년진흥원이 2023년도에 통합이 됐습니다. 원래 청소년진흥원에 있을 때 공무직으로 채용되어 팀원들이 근무를 했는데, 통합이 되면서 성문화센터가 소속시설이고 위수탁 계약기간이 있다보니 경영 기획실의 인사담당자들이 인사위원회를 열어 계약직으로 봐야한다고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최정훈 위원)	탁상행정 아닙니까? 실제로 일을 안 해본 분들의 탁상행정 아닐까요? 불 보듯 뻔한 거 아닌가요? 공무직은 쭉 안정이 되어있는데, 저같아도 기간제로 근무하게 되어있으면 다른 곳을 쳐다보게 되죠. 하지말라고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이순실 위원)	이 부분에는 다양한 상황과 맥락이 들어가있습니다. 통합은 경영효율화, 예산 절감 이 두가지를 목표로 했고 그 다음이 기관의 슬림화가 세번째였습니다. 기관의 슬림화는 뭐냐면 현재 소속시설이 106명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소속시설이 112개가 있어요. 소속시설이 이렇게 많다 보니 기관 슬림화를 위해 초반에 성문화도 소속시설이니 빠르게 민간으로 넘기는 방향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2차까지 연장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이 성문화센터가 어디에 소속되는지 결정이 안된다 보니 이와 맞물려서 직원들도 연속선상에서 공무직이라는 직위도 흔드렸던 거죠.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핵심은 이 중요한 사항을 먼저 결정을 했어야 하는데 변죽만 올리는 거 아닙니까?
(이순실 위원)	그래서 지금 통합 후에 이게 정말 경영효율이고 기관의 슬림화고 예산 절감이냐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통합된지 이제 2년이 넘었습니다. 우선 큰 것부터 통합되면서 이제 하나하나 문제 상황이 발견이 되고 하나하나 개선해나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문화센터 센터인데, 원장님께서 이러한 문제들을 간파하시고 고쳐나가고 계십니다.
(최정훈 위원)	보통은 민간으로 넘어가면 수익창출이 껑충 올라갑니다. 전기세, 수도세, 철도 이런 부분은 그래요. 하지만 시골 지역 의료원처럼 민간에서 운영해봤자 손해인 사업들은 국가에서 개입을 해주거든요. 성문화센터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과연 민간으로 넘어갔을 때 수익 창출이 껑충 뛸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서상범 위원)	근데 이게 좀 굉장히 뜨거운 감자이긴 해요. 이게 어느 지역마다 이제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게 생기면서 기존에 민간에서 위탁 운영을 했던 것들이 서비스원 중심으로 지금 이제 위탁 수탁에 대한 업무가 다 몰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간 민간에서 했을 때보다 서비스원이라는 공적 기관에서 뭔가 했을 때 공공성이 굉장히 확보가 될 거고 직원들의 처우 개선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가져요. 현장에 있는 직원들은 또 그런 공공성 안에서 뭔가 대우받고 싶어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급으로 따지면 좀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서비스원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까지 이제 다 집어삼켜버리니까 기존의 민간 법인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항적인 움직임을 있고요. 그래서 그게 지역마다 굉장히 큰 문제이긴 한데, 큰 틀에서 봤을 때 서비스원은 지금 덩어리가 너무 커졌어요. 3개 기관까지 합쳐졌고 합쳐지다 보니까 그 밑에 깔려 있던 수탁 기관 이런 것들이 달려 들어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마 꼼꼼하게 보지는 못해요.
(최정훈 위원)	결정권자들이 혼란을 만든 것 아닙니까 지금.
(서상범 위원)	원장님 새로 오셔서 그 부분 맥락을 잡으시는 것 같아요.
(이순실 위원)	원장님은 30 몇 년간은 이제 이런 공직에서 행정을 하셨던 분이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굵직한 것들을 많이 지금 해냈습니다. 통합 규정도 했고 그간의 급여나 이런 거 해서 지금 통일화시켰거든요.

	<p>작년에 그래서 이제 그런 산재된 현안들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또 우리 이제 성문화센터 이런 문제들을 아시고 계셔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원장님의 의지만 가지고 안 되고 도에서 복지 보건 정책과 청소년팀에서 같이 힘을 내주시고 그래야지 이제 이게 좀 타결이 될 것 같아요.</p>
(서상범 위원)	<p>이 부분에 있어서 충남사회서비스원에 또 이사회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도 국장님들 다 들어오시거든요.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사안에 대한 위중함을 좀 알려드리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전하고 또 달라진 것 같아요.</p>
(이순실 위원)	<p>그 때 노동자 이사가 이의제기를 했고 그래서 원장님이 자료를 확인하시고 알고 계십니다.</p>
(서상범 위원)	<p>어쨌든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여기가 청소년 성문화이기 때문에 흥성에 있는 청소년들 아동들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공공성을 갖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계속 순환 서비스로 에서 공공성을 갖고 이거는 좀 진행이 돼야 될 중요한 전달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거는 여기서 어쨌든 논의가 또 깊게 됐고 도청과 이사회에서도 충분하게 논의하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 더 그 혜택이 아이들한테 갈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추가적인 의견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심의를 마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p> <p>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결정 제1항 2025년 충남흥성청소년문화센터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p> <p>추가적으로 토론이나 제안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p>
(최정훈 위원)	<p>진료를 하다보면 성폭력 피해로 오신 분 중에 상당 수가 지적장애인인 많아요. 우리가 봤을 땐 뻔한 스토리에 왜 그렇게 당할까 싶지만 다른 부분이거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애인에 대한 교육은 지금보다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여 교육을 해야하지 않을가 싶습니다.</p> <p>두번째로 자료에 있는 목표 그래프를 보고 목표 수치가 너무 높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5m를 넘을거야 하지만 실제 가능한 건 2m인거잖아요.</p>
(성문화센터)	<p>네. 맞습니다. 성문화센터 목표가 현실적으로 너무 높은 상황입니다. 이 목표는 성문화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게 아니고 여가부에서 정해주는 목표 기준보다 높게 잡아야 하는 상황이라, 흥성문화는 여가부에서 지정해준 목표의 최저치로 맞춰놓은 상태입니다.</p>
(서상범 위원)	<p>위낙에 또 일하는 분들이 없으니까요. 또 한 가지 보면 찾아가는 성교육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아서 이제 그 교육을 하고 수익을 아까 천만 원 넘게 발생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가서 교육을 진행한 다음에 돈을 받는 건가요?</p>
(성문화센터)	<p>네. 저희가 교육을 진행을 하고 나면 교육에 대한 교육비가 청구됩니다.</p> <p>찾아가는 성교육을 무료로 진행하는 지역도 있기는 합니다.</p>
(서상범 위원)	<p>그러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게 이거는 공적인 교육이고 아이들에게 당연시 해야 될 교육인데 그걸 학교의 교육에 교육비가 청구되느냐는거죠. 왜냐하면 민간 쪽에서 교육 기관이 들어가면 돈 받는 건 맞는데 여기는 공공기관이고 여가부에서 만든 곳이잖아요. 이 사업비에 대한 것들도 지자체에서 다 지원이 되는 건데 거기에서 별도로 학교나 공공기관에 들어가서 애들을 성교육시키는 데 돈을 학교에서 또 받는다는게. 그러면 선생님들은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또 이러한 교육들을 또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제가 얼핏 들어보니까 센터장님도 가서 현장 가서 애들 강의하고 그다음에 교육비 받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벌어가지고 운영비도 보태고 뭐 보태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기형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센터 운영이 그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게 여가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p>
(성문화센터)	<p>우선 지침상으로는 수익금이 발생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긴 한데요. 제가 알기로 전북의 군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자체 군산시에 속해 있는데 지자체에서 모든 지원이 다 이루어집니다. 인건비부터 전기세 수도세 전기료 인터넷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수익금을 벌지 않아도 강사들은 교육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p> <p>현재 저희는 나오는 현재 국도비 운영비 금액은 보시다시피 인건비가 대부분으로 남는 운영비는 정말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익금을 벌 수 밖에 없는 상황인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더 요구해서 나온 예산이 임차료와 처우개선비 두 예산이 도에서 추가된 부분입니다.</p>
(이순실 위원)	<p>그래도 여기 충남은 제가 알기로는 물론 다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도에서 지금 처우개선비가 매월 9만 원에서 15만 원씩 근무기간이 따라 이제 좀 차등이 있어서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120% 명절 수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운영비를 벌어오면 그거는 공공 자산이 예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사실 처우개선비나 인건비에 들어갈 수 없다 보니까 여가부도 궁여지책으로 발생된 교육비 수익금을 운영비 이런 공공 요금이라든지 이런 이런 쪽에 쓰도록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인건비성이나 이런 쪽으로 합류되는 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여가부 지침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p>

이제 아까도 여가부의 실적이나 목표를 말했는데 그게 너무나 우리 두 분만 근무하셨다가 이렇게 혼자 하는데 그게 얼마나 압박감을 줄까 싶어요. 이제 곧 여가부에서 실사가 나옵니다. 나올 때 이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인력 또 여러 가지 봤을 때 목표 실적이 정해져 있지만 그거를 달성하기 어렵다라는 어떤 상황적인 것들을 또 감안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긴 해요. 그 목표는 직원이 그래도 최소 5명이 확보됐을 때 운영이 되고 그 목표가 연결이 된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처우와 또 안정성과 또 기관이 이렇게 통합되고 흡수되면서 이렇게 민간이나 자꾸 이게 공론화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가야 모든 게 이렇게 좀 순조롭게 순기능을 하면서 가는데, 지금은 다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바램은 지금 계신 선생님 개인이 그 목표나 수익금에 대한 압박금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적어도 세번은 교육을 꼭 나가는데, 쉽지 않은 업무의 강도에요.

(최정훈 위원) 이 시스템이 성과급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거죠?

(이순실 위원) 네. 성과급 관련해서 지금 이 운영위원회가 전에는 왜 없었냐면 진흥원 내 성문화센터의 위치는 좀 애매했던 거예요. 포지션이 완전 소속 시설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직원도 아니고 그 중간이었던 거죠. 성문화센터 직원들이 진흥원일 때는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회서비스원에 통합이 되면서 여기가 진흥원의 소속시설이었고 소속시설의 운영 지침에 따르니 보니까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운영위원회가 생긴 거고 또 성과금이니 이런 것들이 지금 안타깝게도 없어진 상황입니다.

(최정훈 위원) 넘을 수 없는 산을 만들어 놓지 말고 넘을 수 있는 만큼의 교육을 해서 수익을 창출을 하고 성과급을 주고 하면 직원들이 안정된 직장생활에 성과급까지 있으면 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에서 처우개선비나 명절수당을 마련했던 이유가 기본급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이에요. 현재 성과급만 사라진 게 아니라 진흥원에서 출연금으로 보전 받던 수당들도 전부 없어졌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는 106명이라는 소속시설 직원이 있기 때문에 성문화센터만 예외를 둘 수가 없어요. 어디는 주고 안주고 그럴 수는 없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도청 청소년팀에서 한 번 검토해주시고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직 채용으로 안정되게 해주고 성과를 올리면 성과급을 주고 해야지, 일을 백만금 하나 천만금 하나 월급이 똑같으면 다 백만금 하는 거에요. 백만금 한 사람과 천 만큼 한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나야 합니다. 이런걸 제대로 안해주면 다른 곳을 쳐다보게 되거나 백에 맞추게 됩니다.

(박종태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162개라는 소속기관은 어떻게 되죠?

(이순실 위원) 아니요. 162개는 아니고요. 사회서비스원이 통합된 기관에서는 제일 인원수가 365명으로 많았어요. 소속 시설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한 220명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소속시설을 민간으로 많이 전환을 했죠. 근데 성문화는 그래도 버티고 버텨서 그냥 연장만 한 거예요.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소속 시설 성문화 센터 같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한 200여명 정도 되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어떤 다른 이름의 센터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있나요?

(이순실 위원) 네 돌봄센터 예미지 어린이집 이렇게 그건 다 서비스원 소속시설입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센터에 어떤 소속기관 분들도 예를 들어 도청에 어느 부서랑 연계가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순실 위원) 거기는 다 서비스원이니까 복지부 정책과에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기형적인 거예요. 소속 시설이 없니까 서비스 지원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문화센터는 청소년팀에서 위탁을 진흥원에 준거기 때문에, 지금 서비스 지원실이 아니고 상담센터한테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기형적이고. 저는 상담복지센터장인데.

(김지혜 위원)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강원도에서 활동을 했던 터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지금 1년 후에 지금 연장이 됐다고 하는데, 내년 12월 말까지. 12월 말에도 이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지금 저는 들었거든요.

(이순실 위원) 더 안좋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되고 있고 어쨌든 위탁을 민간으로 가도 고용 승계가 되고, 저희 원장님은 고용승계 가기 전에 지금 팀원들 계약직으로 잘못된 거잖아요. 그건 바로 바꾸려고 합니다.

(김지혜 위원) 1년 연장되고 그 이후에는 위탁이 어떻게 되나요?

(서상범 위원) 서비스에서 할지 또 민간으로 갈지 그건 아직 확정은 아니고 근데 이제 공공 이제 서비스원에서 계속 가면서 이제 그거 아까 얘기했던 센터장이라든가 팀원들에 대한 공무 직장 이런 거는 그전에 다 작업들을 좀 해놔서 네 그 서비스는 하던 민간이 하던 연계가 되더라도 이제 처우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김지혜 위원)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원장님의 또 그거에 대한 감은 다 지금 잡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야 지금 선생님들이 버텨온 거에 대한 보상 그게 될 것 같아요.
(박종태 위원)	한 15개월 남은 거네요. 그러니까 내년 12월에 민간으로 갈지 공공으로 계속 남을지 아직 정해진 확정된 건 아니었잖아요. 아까 성과 기준도 말씀하시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처우가 좀 낮은 문제가 있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서비스원이 이렇게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도 주셨는데 언뜻 드는 생각이 지금 처우의 문제를 예를 들어 사회서비스원 내에서 해결이 안 되고 도에서 이렇게 간다고 하면 진짜 나중에 가면은 민간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명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순실 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전략을 좀 잘 세워야 되는거죠.
(박종태 위원)	이쪽의 처우를 무조건 이제 이렇게 떨어져서 처리를 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사서원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조달한다면.
(이순실 위원)	저는 또 반대로 이렇게도 생각해요. 팀장님 일단 성과급까지 받았고 그리고 여기가 공무직으로 다시 예전처럼 복귀됐고 그리고 센터장이 안정적으로 된 후에 예를 들어 대학교 같은 곳에 위탁으로 다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 여기 있는 파이라든지 여기 지금 현 위치에서 운영되고 있는 걸 바꾸지는 않거든요. 민간은 그대로 가져 가죠.
(서상범 위원)	그렇죠. 더 좀 자유롭게 일할 수 있죠.
(이순실 위원)	네 또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미리 작업을 해 주시면 이제 세팅이 됐으니 이 세팅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이제 민간으로 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원에서 나와서 이렇게 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민간으로 이제 독립해서 나갈 때 어느 정도 이제 파이를 갖고 나가는 거라는 거죠.
(이순실 위원)	성문화센터가 민간으로 가기에는 지금 기준에 불합리한 것들을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간다면 공공이든 민간이든 청소년에게 혜택이 가는게 우선순위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너무 소모전이었어요. 가느냐 마느냐. 지금 그래도 내년 12월까지 기간이 있으니 이 기간 안에 불합리한 것들을 개선해서 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상범 위원)	그게 원래 원래 충남 사회서비스원이 해야 될 역할이 그거예요. 인큐베이팅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기형적이고 처우도 낮고 불안한 곳이 있으면은 서비스원이 맡아서 처우도 좋게 하고 그런 정비를 한 다음에 괜찮은 민간이 있으면 그쪽에다 위수탁 주는 게 원래 서비스원이 해야 되는데 그걸 품고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이제 직원들은 물론 이제 공공에 남기를 원하겠죠. 직원들은 서비스원의 직원으로 처우받기를 원할 거예요. 직원들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어떤 부분 때문에 일을 하는지에 대한 정리를 꼭 해야 돼요. 내가 처우 개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걸 너무 쟁기다 보면 진짜 현장에서 내가 제대로 해야 될 역할을 더 등한시 할 수 있거든요. 네 그것도 양날의 칼이에요.
(최정훈 위원)	군산은 어떤가요? 민간위탁인가요?
(이순실 위원)	군산은 좀 모르겠어요. 지금 57개가 있다고 그랬죠?
(성문화센터)	아까 말씀드렸던 군산은 군산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다 전체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급 나가는 거나 이러한 행정에 대한 직원도 따로 두지 않고 담당 주무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정훈 위원)	직원들이 바라는 모델이 그런 모델 아닌가요?
(성문화센터)	네. 사실 성문화센터 자체는 교육을 위한 기관임에도 저같은 경우에 하루 업무의 8할 이상을 행정에 쏟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군산은 안정적인 직장이고 여기는 완전히 불안정한 상태네요.
(성문화센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는 수익금이 발생하지만, 군산은 수익금 없이 교육이 충분히 가능한 곳인 이유도 여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최정훈 위원)	수입이 안되는데 민간에서 이걸 잡으려고 할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엄청난 자원을 주지 않는 한 수익이 발생한다해도 민간이 하려고 할까 싶습니다. 빠르게 고용을 안정화시키고 센터를 안정 시켜서 쭉 끌고 가야 센터가 안정되고 민간 위탁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순실 위원)	민간에 가게 되면 도비가 빠지고 민간에서 지원을 하게 되나요?
(박종태 위원)	그건 모르겠어요. 민간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 자체 업무가 그렇죠.

	이게 이제 계속 가야 하는 업무라고 하면 기본 지금 현재 지원은 계속되지 않을까요?
(이순실 위원)	그죠? 이대로 되는거잖아요.
(박종태 위원)	이대로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루어지겠죠. 궁금한 게 예를 들어 지금 공무직이라고 했는데 센터가 민간으로 간다 하면 본인은 서비스원에 들어가는건가요?
(성문화센터)	저는 성문화센터의 공무직이기 때문에 센터가 민간으로 넘어가면 센터에 귀속되어 민간으로 고용승계가 되어 같이 옮겨갑니다.
(최정훈 위원)	그만둔 직원분들은 그게 아니라는거죠?
(성문화센터)	네, 아까 말씀드린 퇴직원은 기간제라 고용승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순실 위원)	이게 참 절차나 과정에서 그럴 수 밖에 없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소속시설인데 예외로 특혜를 준다는 부분이 있어서 계약 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거죠,
(서상범 위원)	새로운 센터장이 이제 뽑히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좀 그런 절차적인 부분들이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되게 기형적인 거라 현장에서도 이렇게 하는 거는 거의 못 봤어요. 이건 예의도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기준에 열심히 해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기간이 만료되니까 나가세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문제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아니 혼자 열심히 또 돈까지 벌어오고 그렇게 진짜 열심히 했고 벌어서 운영비를 냈던 직원인데 센터장인데 그걸 계약 기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엄청난 그거는 아닌 거죠. 너무 배신감 느껴질 것 같은데 이건 행정적으로 절차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사회서비스원의 실무진 쪽에서 계약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점검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해야합니다. 원장님하고도 운영위원회 안에서 논의된 부분들 충분히 얘기 좀 해주세요.
(이순실 위원)	월요일에 흥성천안성문화센터와 원장님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때 이러한 내용 포함해서 자료 만들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상범 위원)	위원님들께서 센터에 정말 많은 애정과 관심 가져주셔서 시간이 벌써 많이 됐습니다. 직원 선생님들이 힘이 안나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직원이 행복해져야 이 곳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고스란히 그 서비스가 가거든요. 결국 처우 같은 것들이 상식적으로 잘 처리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앞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 우리 선생님은 잘 귀담아들으시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 제1차 흥성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안건 의결 내역

① (제2025-1호) 2025년 충청남도홍성청소년문화센터 예산(안)

운영위원	의 결 내 역				서 명
	가 결	부 결	수 정	기타 의견	
박 종 태	○				박종태
이 순 실	○				이순실
(공 석)					
김 지 혜	○				김지혜
변 승 기					
서 상 범	○				서상범
최 정 훈	○				최정훈

제1차 운영위원회 결정 사항 공고

1. 2025년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운영위원회 위원장: 서상범 위원(청운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지혜 위원(충청남도서부해바라기센터 부소장)

2. 시설 운영 현황

- 충청남도홍성청소년문화센터 운영 근거 및 주요 활동 보고
- 2025년 총예산 및 예산 구성 보고

3. 상반기 실적 보고

- 25. 6. 30. 기준 상반기 실적 및 원인 분석
- 지속가능한 개선방안 설명

4. 2025년 충청남도홍성청소년문화센터 예산(안) 심의

- 센터 내 사업 개요와 사업비 추진 근거 설명
- 본예산 대비 증감액 발생 사유 및 이후 예산 변경 가능성 설명
- 추후 예산 편성 절차 '운영위원회→道'로 변경 필요

5. 기타의견

- 성문화센터 직원의 고용 안정과 공무직 채용의 필요성
- 비현실적인 목표실적 변경 필요